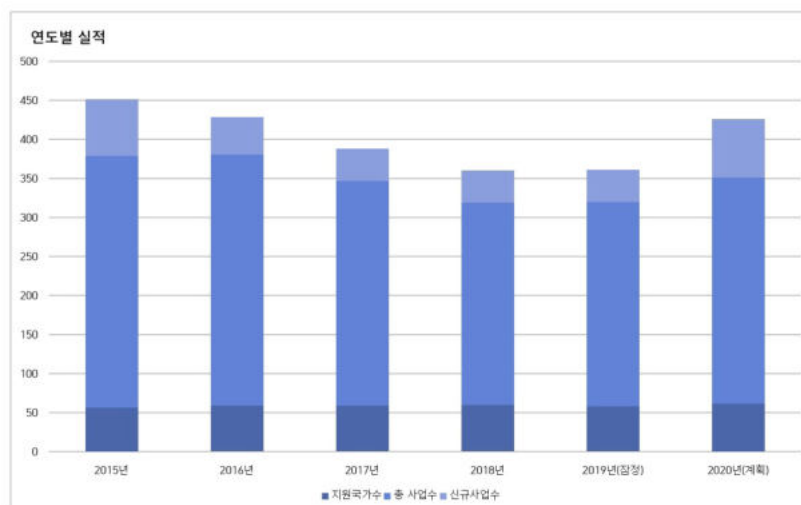


II

코이카 프로젝트

1

1991년에 설립한 **KOICA(한국국제협력단)**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, 여성, 아동, 장애인, 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 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,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,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. 설립 당해에는 프로젝트형 사업 도입 및 추진 착수, 타 공여국 선례를 참고하여 제도 정비 및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행했다.

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(실적)	2020
지원국가수	56	59	59	59	58	61
총 사업수	323	321	288	260	262	290
신규사업수	72	48	41	41	54	75
잔액(억)	279,557,414,880	327,395,967,545	315,535,143,605	336,066,003,703	308,141,253,665	366,144,000,000

2

사업 세부 형태

KOICA는 사업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.

1) 프로젝트형

- 건축, 시설물, 기자재 등의 물적협력수단(hardware)과 전문가 파견, 연수 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수단(software)을 결합한 사업

2) 개발컨설팅

-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, 전문가 파견, 초청연수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

3) 분쟁 및 취약국 지원

- 민주적 제도 구축 지원, 분쟁폭력 상황 대응 및 평화 복원 등을 통해 분쟁 취약성의 구조적·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

3

사업 추진 방법

2019년부터 KOICA는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을 '국별협력사업'으로 통칭하기로 결정했다. 현재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·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등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협력수단과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로 하여 다년간(약 2~5년) 지원한다. 아시아태평양, 아프리카, 중남미, 중동CIS 대륙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57개국(2018년 기준)을 대상으로 한다. 대표적으로 공공행정, 교육, 기술환경에너지, 농림수산, 보건의료까지 총 5가지의 지원 분야가 있으며 캄보디아 사업은 교육 분야로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과 목표가 협력국의 PBA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대표적으로 건축, 시스템 개발, 기자재 지원, 전문가 파견, 연수, 사업자문을 살펴볼 수 있다.

1) 전문가 파견

- 현지 파견하여 자문, 계획수립, 연구, 조사 등의 항목을 수행
- 수원국의 담당자와 공동연구를 수행
- 워크숍, 포럼, 발표회 등의 개최 포함

2) 연수

- 수원국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, 훈련 활동 지원
- 국내초청연수 또는 현지연수의 형태

4

코이카 프로젝트 형성절차

사업발굴 → 형성조사 → 정부심의 → 기획조사 (외부전문가, 전문기관 선정) → 조달



5

입찰절차 및 방식

나라장터 회원가입 → 협력단 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→ 연간 발주계획
조회 → 사전공고, 본 입찰 공고 조회 → 입찰설명회, 입찰참가 신청 →
기술제안서 제출 및 기술평가 → 가격 투찰 → 개찰 및 입찰결과 확인
→ 기술 협상 및 가격협상 → 계약서 작성 및 송수신 → 계약체결 → 계
약이행

*코이카 ABC 프로젝트

ABC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대응 지원을 위한
개발협력 전략인 'Building Trust'의 일환으로 추진되어, Save Lives,
Safe Livelihoods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
진되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다.